

오피니언

데스크 시각

정 후 식



축제는 끝났다. 영암벌을 뜨겁게 달군 포틀러(F1) 머신의 시동은 꺼졌다. 난생처음 접하는 광음과 질주에 화들짝 놀라면서도 지역민들은 세계 3대 스포츠 이벤트라는 호기심과 지역 발전을 위한 행사의 기대에 공감하며 앓다뉘 참여했다.

주차난과 교통대란속에서도 10리가 넘는 길을 걸어가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다. 공무원들도 '개도(開道) 이래 최대 행사'라며 티켓 판매와 대회 운영에 힘을 보탰다. 그 결과 대회기간 16만3000명, 결승전만 8만명의 관람객이 찾아 국내 스포츠 사상 최고의 관람기록을 세웠다. 열악한 모터스포츠 기반과 낮은 인지도를 극복하고 '홍행'에서는 성공을 거둔 셈이다.

자신감이 최고의 수확

첨단기술의 경연장이자 세계 최대의 모터스포츠 축제인 F1 국제자동차대회를 인구 6만여명에 불과한 국토 서남단의 작은 소도시 영암에서 개최하는 것은 어

쩌면 모험이었을지도 모른다. 그나마 코리아 인터내셔널 서킷이 들어설 곳은 농사용으로 조성한 허허벌판 간척지에 불과했다.

우여곡절 끝에 경주장이 완공돼 최고 등급으로 검수를 통과했다. 첫 대회도 무난히 치렀다. '무화과 마을' 영암군 삼

지속 가능한 영암 F1의 필수조건

호읍은 그야말로 '천지개벽'했고, 전 세계가 주목하는 'F1 개최 도시' 반열에 올랐다. 수도권이 아닌 지방 중소도시에서도 대형 국제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를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줬다. 이 과정에서 주민들과 공무원들이 체득한 자신감은 다른 무엇보다 견줄 수 없는 값진 결실이다.

특히 F1 대회는 7년을 끝어낸 서남해안 관광레저도시 조성(프로젝트)의 선도사업으로서 첫 단추를 꿴다는 점에서 의미가 적지 않다. 삼포지구 개발이 계획대로

만 추진되면 영암과 목포는 물론 낙후된 전남 서부권 경제를 일으켜 세우는 신성장 엔진이 되기에 충분하다.

하지만 이제 그동안 덮여두었던 대회 준비 및 진행 과정의 문제점과 경제적 득실을 냉정히 따져봐야 한다. 영암 F1은 이번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 6년동안 계속 열리고, 5년간 더 연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산 확보 지연과 잦은 비를 감안하더라도 최소한 3개월 이전에 마쳐야할 경주장 공사를 대회 당일까지 마무리하지 못할 정도로 허술한 준비과정은 불신을 사기에 충분했다. 이로 인해 레이스가 매

끄럽게 진행되지 못했고 대회의 품격까지 떨어뜨렸다.

미숙한 대회 운영도 이미지 실추에 한 몫을 했다. 자유이용권 발매는 거금을 투자해 티켓을 구입한 관람객들의 항의를 자초했고, 셔틀버스도 제대로 운행되지 않아 교통혼잡을 부추겼다. 홍보 부족과 열악하기 짝이 없는 편의시설도 원성을 샀다.

더욱이 영암 F1의 '삼두마차'적인 대회운영법인 카보(KAVO)와 조직위원회, 전남도청 '순파로 발파로'식 불협화

음은 실망스럽기 짝이 없었다. 이틀간 잠재된 갈등은 거센 후폭풍마저 예고하고 있다.

'속빈 강정' 되지 않으려면

관람객수를 자랑하지만 이마저 '속 빈 강정'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수익 창출을 위해서는 티켓 판매에 더해 스폰서십 유치도 필요하지만 타이틀 스폰서는 커녕 스카이박스 판매도 거의 이뤄지지 못했다는 후문이다. 공짜표로 관객몰이에는 성공했지만 내실이 없었다는 얘기다. 철저히 비밀에 부쳐지고 있는 티켓 판매 정보도 공개돼야 한다.

당초 3400억원으로 예상했던 경주장 공사비가 4000억원 이상으로 크게 늘어난 것도 철저한 검증이 이뤄져야 할 대목이다. 그동안 경주장 건설과정에서 발생한 지방채와 채무보증, 이자부담을 감안하면 더 이상 빚잔치를 계속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세계 5대 자동차 생산국에 걸맞게 F1 대회와 모터스포츠 육성에 대한 정부 및 기업들의 관심과 지원도 절실하다. 중단 없는 '영암 F1' 코리아 그랑프리 질주와 이를 통한 지역경제 발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필수 조건이다.

<정경부장> who@kwangju.co.kr

시 설

F1 경주장 건설비 '눈덩이' 진상 규명돼야

영암 F1 경주장 건설비가 당초 예상보다 10~20% 가량 늘어난 알려졌다. 특히 시행사인 카보(KAVO)가 가설 스탠드 자재를 중국산으로 고집하면서 자체 확보가 늦어져 대회개막 후까지 완공을 하지 못해 국제적 망신을 샀을 뿐만 아니라 인건비 등이 크게 늘어 건설비용의 증액을 초래했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수 천억 원의 예산이 소요된 건설비용이 무엇 때문에 눈덩이처럼 불어났는지, 가설 스탠드 자재로 꼭 중국산을 사용해야 했는지 등 제기되고 있는 의문점에 대한 사실 규명이 철저히 검증돼야 한다. 앞으로 개최될 영암 F1의 원만한 운영과 성공을 위해서 이 같은 잡음은 해소돼야 하기 때문이다.

애초 영암 F1의 건설 비용은 총 3400억 원으로 이 가운데 1760억 원은 국·도비로, 나머지 1760억 원은 민자로 충당했다. 하지만, 사업비는 공사가 진행되면서 눈덩이처럼 불어나 4000억 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무려 600억 원 이상이 더 소요된 것이다.

이에 대해 카보 측은 대회 규정을 준수하기 위한 잦은 공정 추가로 불가피했다고 밝히고 있다. 원래 설계에 없던 새로운 필수작업이 추가돼 사업비가 늘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는 사업비 증액이 연약한 개량과 같은 기초공사보다 더 시정 포장, 폐차, 안전 시설물 설치 등에 집중된 결 결 보면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어 보인다.

그렇다 해도 대회 무산 우려까지 낳았던 공사 지연 원인과 600억 원에 달하는 공사비 증액이 철저히 검증돼야 한다. 특히 가설 스탠드 자재를 대회 차질과 인건비 등 부대비용의 엄청난 추가 부담을 감수하면서까지 굳이 중국산을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진상이 규명돼야 이 가운데 1760억 원은 국·도비로, 나머지 1760억 원은 민자로 충당했다. 하지만, 사업비는 공사가 진행되면서 눈덩이처럼 불어나 4000억 원이

상금 못줘 망신 산 광주가족음악페스티벌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있는가. 광주시가 주최한 가족음악 페스티벌에서 다문화 가족 등 입상자들에게 한달이 넘도록 상금이 지급되지 않아 망신을 사고 있다니 말이다. 특히 행사를 주관한 이벤트 업체가 금전문제로 행사 대금에 가압류가 설정돼 있어 속수무책이라고 하니 한심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광주시는 지난달 11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다문화 가족팀과 한가족팀, 이웃사랑팀 등 3개 분야에 모두 106개 팀이 참가한 제2회 가족음악페스티벌을 개최했다고 한다. 이 페스티벌은 대상 1개 팀 300만 원을 비롯해 금상 200만 원, 은상 100만 원, 동상 50만 원 등 총 45개 팀에 상금 2천72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그러나 본선에 입상한 5개 팀을 포함한 27개 팀에만 상금 1500만 원을 수여하고, 금상과 은상을 차지한 다문화가족팀 등 18개 팀에는 현재까지 상금 1220만 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상금을 줘야 할 행사 이벤트업체가 금전 문제로 가압류가 설정돼 있기 때문이다. 광주시는 총 행사대금 1억 5600만 원 중 9300만 원을 선금으로 지급하고 잔금 6300만 원을 업체에 내려 보내야 하지만 잔금에 대한 가압류가 설정돼 있어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

광주시의 수처이자 불명예가 아닐 수 없다. 이벤트업체에 대한 사전 파악 없이 행사를 맡긴 것은 무사안일이나 다를 게 없는 것이다. 특히 낯선 한국 문화에 익숙하지한 여러 방면에서 노련한 다문화 가족팀을 떠올리면 가슴 아픈 일이다. 상금을 주지 않으므로써 광주시에 대한 실망감은 물론 마음의 상처 또한 어찌하겠는가.

광주시는 조속히 상금을 지급하는 방안부터 찾아야 한다. 가족 위안잔치가 불신을 키우는 행사로 전락한 만큼 대상자에 대한 사과와 관계자 문책도 뒤따라야 할 것이다.

無 等 鼓

러시아 혁명가로서 한때 레닌의 후계자로까지 거론됐던 레온 트로츠키(Leon Trotsky)는 어느 혁명가처럼 불운한 생애를 보냈지만, 특히 망명 도중 암살된 것으로도 유명하다.

니콜로프에 의한 발작으로 시달리던 레닌이 1924년 숨지자 당의 노선을 놓고 스탈린과 대립하던 트로츠키는 정치적으로 고립되고, 결국 1929년 소비에트 연방에서 추방되고 만다.

이후 터키와 프랑스, 노르웨이를 전전하다 1936년 멕시코에 정착한 트로츠키는 4년 뒤인 1940년 5월 명과 안전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환경을 만들어 가는데 이번 경험이 귀중하게 활용되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지치자던 것처럼 위장한 스페인 출신의 소련 비밀경찰요원 라몬 메르카데르는 1940년 8월20일 트로츠키를 찾아가 서류를 건넨다. 트로츠키가 고개를 숙이고 서류를 읽어가는 동안 메르카데르는 겉옷 속에 감춰 온 '알을 깨는 송곳'을 꺼내 트로츠키의 두개골에 찔러 넣는다.

그들은 평생을 어둡고 의롭게 지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최근 숨진 황장엽 전 북한 노동당 비서도 아내·자식들과 생이별해 한국에서 고독한 여생을 보내야 했다. 고국에서 찾아온 암살자에게 살해된 트로츠키처럼 황 씨도 북한에서 보내 온 암살자에게 당하지 않았다는 의욕이 있었지만, 부검결과 타살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한다.

그의 손에 목숨이 끊어지지 않았다니 그녀가 다행이긴 하지만, 정치적 신념을 지키기 위한 대가가 너무도 엄혹한 것 같아 마음이 무겁다.

광명객의 최후



광명객의 최후

/홍행기 정경부차장 redplane@

은펜칼럼

목영석



오랜만에 나선 고향 길에서 평소 마음을 나누던 선후배와 만나기로 했다. 15년 전에 살았던 동네에서 막걸리나 한잔 할 요량이었는데 차창밖에 비치는 풍경이 카톨릭 학교의 동네와는 많이 달라져 있었다.

팔도 장터나 바자회를 열고하던 동네 어귀 공터는 대형마트가 자리 잡았고 새벽 된바람을 헤치고 공치기에 바빴던 테니스장은 공원으로 바뀌었다. 서울손님 숙소가 마땅치 않아 모시곤하던 뒷골목 여관 네온사인은 화려하기보다 쓸쓸한데 보이고, 사거리 슈퍼

아저씨는 늘 머리카락을 확 속삭아달라는 내게 머리술 많다고 안심하지 말라셨다.

머리카락 빠져 고민하던 사람들도 많이 보았지만 갓서른이 넘은 내게 그 충고가 들릴 리 만무했고, 십여 년이 흐르고 나서야 나는 그 의미를 실감했다. 그에겐 손님이 밀릴 때면 머리감는 일을 분담하던 아내와 개구장이 두 아들이 있었는데 아무리 아이들이 성가시게 물어도 소리치는 법이 없었다. 나 역시 몇 년 후엔 귀찮게 물어달라 할 만큼 아이들이 컸지만 것처럼 자상하게

옛 동네 길에서

마کت은 어디로 옮겼는지 보이지 않았다.

동네풍경이 그럴진대 그 속에 살던 이들은 더욱 찾아보기 어려웠다. 당시 야 신흥주택가라 같이 출퇴근하던 이들이 많아 카톨릭 학교 퇴근길엔 동네 어귀에서 술잔도 기울이곤 했었다. 퇴직한 선배는 전원으로, 아이들이 커 가는 동료들은 좋은 학군 찾아 이사하고, 더러는 서울로 가버려 술집에 부를만한 동료가 몇 되지 않았다.

그때로인 것들도 있기는 했다. 까니 때마다 복적이던 소문난 식당들은 여전히 성업 중이었고, 은쟁반이 우체국, 주민센터 같은 광곡서는 대체로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안타까운 것은 시간에 쫓기어 단골 이발소를 찾아보지 못한 것이다. 쉬는 날이면 낚시를 가하던 이발사

아이들을 키우지는 못했다는 자괴감이 일었다.

비 내리는 옛 동네에 서니 후회스런 일들이 먼저 떠오른다. 남보다 열심히 일하지 않았으면서도 직장에서 불평이 많았고, 착한 척 겸손한 척하면서도 주변 사람들을 배려하지 못했다.

무엇보다 가슴 아픈 일은 학창시절 누구보다 열심히었던 신앙을 지키지 못한 일이었다. 하루걸러 술을 마시고 담배냄새 배인 옷을 입은 채 기도를 하면 평안보다 죄책감과 스스로에 대한 모멸감에 헤어나기 어려웠다.

더 취하기 전에 서둘러 일상으로 오려는 택시를 잡는다.

거리는 변하고 사는 이도 달라지고 세월은 흐른다.

<농협중앙회 차장·05. 7월 수상자>

광주일보는 '오피니언'면 기고중 분기별 최우수자를 선정해 '은펜상'을 수여 합니다. 은펜칼럼은 이들 수상자들의 모임인 '은펜클럽' 회원들의 칼럼을 실는 코너입니다.

남성분 많은 중국산 어린이 액세서리 안전기준 마련을

최근 초등학생 딸아이가 학교 앞 문구점에서 산 것이라며 장난감 목걸이와 반지를 자랑했다. 한눈에 봐도 조작스러워 보였지만 아이가 좋다고 하니 빼라고는 할 수 없었다.

그런데 1주일쯤 지났을까. 딸이 가렵다며 목 부분의 자꾸 긁어대는 것 아닌가. 목걸이를 했던 부분에 빨간 염증이 생기고 반지를 끼었던 손가락에도 상처가 생겼다. 아자 싶어 딸을 데리고 급히 병원을 찾았다.

치료를 받고 나오면서 남성이 많은 완구제품은 인체에 치명적일 수도 있다는 의

사 선생님의 말을 들었다. 보통 저렴한 중국산 액세서리의 남성분 기준치의 수백 배까지 된다고 한다.

이 정도 수치를 급성 피부염 증을 일으킬 수 있으며 장기간 노출될 경우 납 중독의 위험까지 있다고 하니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정부가 중국산 어린이 액세서리에 대해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서도 철저히 검증해 어린이들의 안전을 지켜주기를 바란다.

▲이윤미·광주시 서구 양3동

기 고

범희승



비 오는 결승전 날, F1 레이싱카 9대와 현대 제네시스 레이싱카 5대가 형편 없이 부서지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하지만 레이서 중 다친 사람은 트로피를 들고 축하하다가 손에 상처가 난 단 한 사람뿐이었다. 철저한 안전관리시스템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겠다.

F1 대회를 주관하는 국제자동차연맹(FIA)이 추구하는 모토는 '안전한 운전'이다. F1 대회가 일어나는 동안 모든 중요한 정책결정은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이루어진다. 대회 첫날 레이서

시간 동안은 도로가 아예 주차장이 되어서 차량이 움직이지 못했다. 이런 상황에서 응급환자가 발생하면 헬리콥터로 후송할 수밖에 없다. 많은 나라에서 비슷한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메디컬센터 옆에 2대의 헬리콥터가 대기하지 않으면 F1 경기는 아예 시작도 못하게 규정되어 있다.

이번 F1 대회 기간 중에 안전 보다는 이보다 앞서는 것을 경험하면서 한국 F1의 앞날에 대해 깊은 우려를 금치 못하게 되었다. F1 대회에서는 레이싱 중에 사고가 나서 레이서가 다치게 되면 가

F1, 안전이 지상과제

장 빠른 시간 내에 사고 장소에 도착할 수 있는 차 4대를 서킷 주변에 배치한다. 이 차의 성능은 레이싱카 수준이어야 하고, 운전하는 사람도 레이서 출신이다. 대회가 열리기 전 주에는 여기에

최고 성능의 차가 배치되어 있었는데 막상 대회가 시작되고 보니 그 차들이 귀빈용으로 바뀌어 있었다. 심지어 메디컬센터에 헬리콥터가 2대나 있으니 그 중 한 대를 귀빈용으로 사용하지는

이유이기도 있었다고 한다. 국제적인 행사를 치르면서 참가자 모두가 안전에 대한 국제적인 표준과 실행을 체험한 것이 가장 큰 소득 중의 하나였다고 생각한다. 우리 사회에서 생명과 안전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환경을 만들어 가는데 이번 경험이 귀중하게 활용되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한국 F1 그랑프리 의료단장·전남대 교수>

운전자 부상 방지 승용차 머리 받침대 조절 생활화해야

최근 경찰의 강력한 단속과 운전자들의 안전의식이 높아지면서 안전벨트는 생활화가 됐다.

하지만 대부분의 운전자들이 사고시 안전벨트 못지 않게 운전자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머리 받침대의 중요성은 고사하고 그것이 안전 보호구라는 것조차 잘 모르고 있다.

시속 25km로 달리는 차량이 충돌 사고가 났을 때 목에 어느 정도 충격이 오는지 실험을 한 적이 있다.

충돌순간 목이 90도까지 꺾인 뒤 그대로 앞으로 쫓겨나갔다. 머리 받침대의 높이가 운전자와 맞지 않을 때 발생할 현

상이다. 경미한 추돌사고 시에도 탑승자의 상체가 뒷받침이 마련된다. 이때 안전벨트 때문에 몸통은 지지가 되지만 목은 받침대 위로 넘어가게 된다.

머리 받침대가 적당하게 조절돼 있다면 머리 받침대가 쿠션 역할을 하기 때문에 큰 부상을 막을 수 있다.

가족들이 함께 차를 운전하는 경우에는 사람에게 따라 머리받침대의 높이가 다른 만큼 운전하기 전에 이를 확인해 보고 적절히 조절하는 것이 안전운행의 지름길이라 하겠다.

▲권혁조·광주시 동구 내남동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회장 金鐘宅	사장·발행·편집·인쇄인 柳濟喆	논설주간 申港樂	편집국장 曹庚完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지111211 광주광역시 동구 금곡로 2가 20-2 우편번호 501-7111			
대표전화 222-8111·2200-551 <지사·지국(구독신청·매일내선)>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내선 <대표 FAX 222-4918>	문화생활부 2200-661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회보국 2200-541
편집부 2200-649	여론매체부 2200-621	광고이케팅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정경부 2200-612	체육팀 2200-697	CF A X 227-9500	CF A X 227-9500
<대표 FAX 222-4918>	사진부 2200-693	디자인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사회부 2200-616	조사부 2200-571	기획사업국 2200-555	CF A X 02-773-9335
<대표 FAX 222-4267>	전산팀 2200-68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